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23-6023  
 경기 (0333) 655-5233 강원 (0371) 44-1415  
 충북 (0431) 223-7832 충남 (0417) 61-2215  
 전북 (0652) 231-0824 전남 (062) 522-5768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23-1741  
 제주 (064) 22-6907 인천 (032) 762-7797  
 대전 (042) 636-9896 울산 (052) 263-0031

# 양봉협회보

212호  
 1998년 5월 1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 정해운/편집인: 김충겸/인쇄인: 양광호/발행처: (사)한국양봉협회 (우) 110-126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173삼보빌딩301호 전화(02) 763-1372 · 5903 · FAX: 764-1297

## 제26회 양봉의날 기념행사 및 제7회 아까시나무연구회총회 · 특강

### 4/11. 경북대학교서 성황리 열려

제26회 양봉의날 기념행사가 지난 4월11일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강당에서 전국 5백여 회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사는 작년 제25회때처럼 이번도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정기총회 및 '양봉인을 위한 아까시나무 특별강연회'와 연계하여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양봉의날 기념식은 본협회 정해운회장의 기념사(기념사 2편 참조),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부회장 박용구 교수(경북대학교 임학과)의 축사에 이어 농림부장관 표창장 전수 및 회장훈 모범회원 표창패 수여식을 끝으로 제1부 행사를 마쳤다.

이날 시상부분별 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부장관 표창장 수상자(4명)에는 신유재형(세일양봉원 대표, 본협회 이사) △유택수(한국양봉축협 이사) △안우석(본협회 제

주지회장) △배경수(본협회, 충남 지회장), ▲한국양봉협회장훈 모범회원 표창패 수상자(10명)에는 △윤학로(경기 평택시) △강태원(인천 옹진군) △손민부(충북 연동군) △공영수(충남 당진군) △윤재근(충남 천안시) △성낙진(경북 고령군) △이종구(경남 진해시) △강태원(경남 진주시) △최락철(전북 부안군) △문금열(광주 관산구) 회원들.

이어 오후 1시50분부터는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제7회정기총회 및 '양봉인을 위한 아까시나무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우선 먼저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제3대 회장에 박용구 현 부회장(경북대학교 임학과 교수)이 선출되었고, 임경빈 현 회장(전 서울대 임학과 교수)은 명예회장으로, 조재명 현 부회장(전 임업연구원장 역

임)은 상임고문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그의 부회장단 및 이사진은 원만한 산학협동체 구성-추진을 위해 협의추대형식을 빌어 선임기로 했다.

그다음 순으로 열린 특별강연 시간에는 먼저 이경준 교수(서울대 입산자원학과)의 "아까시나무의 장화키·다밀성 우량개체 선발과 증식" 제목의 '96년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중인 아까시나무 농특과 제연구 수행사항에 대해 개괄적 설명이 있었고 또 헝가리 아까시나무 영립 및 자원이용 실태보고도 곁들였다. 다음차례 특강 주제는 최대봉(유밀봉독산업(주) 대표, 본협회 부회장 역임) 선생의 "양봉인이 체험한 1950년대 아까시나무 조립사례"가 발표되었다(발표 초록 본보 6면에 게재)

그런데 이날 행사 중 옥에 티라고 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 이지방

양봉의날 행사니까? 아니면 아까시나무연구회 행사니까? 답변해주시오"라며 아쉬워한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그도 모자랐던지 그는 등록접수창구에 가선 아까시나무연구회 가입원서 서류들을 빼앗아 버리는 방해까지하는 비이성적 추태를 보여 내외빈들로부터 차가운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우리 양봉인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활개치고 있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 사실 양봉산업은 밀원수(식물) 자원없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제아무리 많은 봉군을 거느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꿀벌은 생산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생산기반은 밀원이 있고난 다음의 일이다. 양봉산업의 생산성은 밀원수(식물) 자원에 달려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게 아닌가.

26년전 선배 양봉인들이 4월4일을 '양봉의 날'로 제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당시 우리나라 남단 제주도에서 유채꽃이 노랑게 물들기 시작한 유채밀원을 바라보면서 "양봉산업의 중흥의 길은 첫째도 밀원이요, 둘째도 밀원"이란 생각으로, 때마침 식목일 하루 전이라는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양봉인도 밀원수 한 그루라도 심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당시 양봉업계는 3대 밀원이라 해서 이 유채밀원을 시발로 해서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제3대회장에 선출된 박용구 교수가 취임수락 인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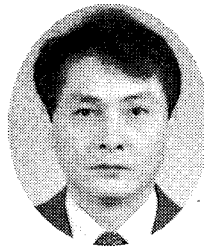
아카시아, 싸리 등을 주요밀원으로 삼아 양봉산업의 생산기반이 돼 왔는데, 오늘에 와선 유채·싸리밀원 두종은 보조밀원으로 전락되고 오직 남은 건 5월의 아카시아 밀원 하나 뿐. 이게 한국 양봉산업이 지금 처한 입지조건 아니던가. 게다가 이 '아카시아밀원'마저 우리 양봉인들만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환경론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나무, 우리 강산을 망치는 흉물 나무"라며 국력을 총동원해서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양봉-농업-임업을 연결시켜 꿀벌을 치는 소양있는 양봉인이 되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애써 일궈 차려놓은 짚상에 숟갈 하나 달랑 들고 대들려는 비양심적 양봉인은 이제부터 도태되어야 우리 양봉업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농림부장관표창 수상자



유재형 (본협회 이사)



유택수 (한국양봉축협 이사)



안우석 (제주지회장)



배경수 (충남지회장)

## 두산유리 규격꿀병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1년7월 두산 규격꿀병이 탄생·유통된지 이제 17년, 규격용량·위생성·견고성·디자인 등 완벽한 꿀병개발로 양봉업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켜 온 제품입니다.

97년말 IMF사태로 부득이 꿀병 단가를 인상했으나 이번에 환율안정 및 고객봉사 차원에서 두산유리와 재협상하여 꿀병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IMF체제하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양봉업계 관계분들께 감사드리며 폐사에서도 지금보다 배가의 노력을 다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 적기에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확한 용량규격
- 위생적 처리
- 견고한 재질
- 현대감각의 디자인

제품규격 · BOX당수량

규격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규격	신2.4kg	신1.2kg	신0.6kg	신신2.4kg	신신1.2kg	50g
수량	9	16	32	1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 (주)대한양봉산업

☎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 817-8128

